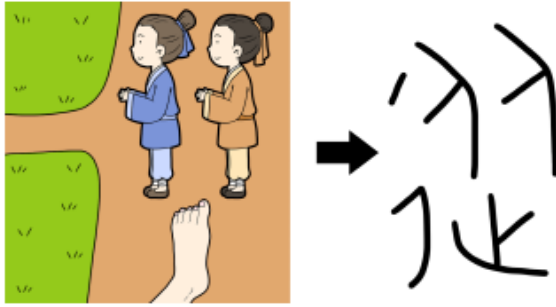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從

쫓을
종(·)

從자는 '쫓다'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從자는 𠂔(조금 걸을 척)자와 止(발 지)자, 从(쫓을 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쫓다'라는 뜻은 从자가 먼저 쓰였었다. 从자는 사람을 나란히 그린 것으로 뒷사람이 앞사람을 '쫓아가다'를 뜻했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여기에 𠂔자와 止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따라 뒷사람이 앞사람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𠂔

금문

𠂔

소전

從

해서

회의문자①



座

자리 좌:

座자는 '자리'나 '지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座자는 广(집 엄)자와 坐(앉을 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坐자는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座자는 이렇게 '앉다'라는 뜻을 가진 坐자에 广자를 결합한 것으로 '집안에 앉는 곳' 즉 '자리'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고대에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앉는 위치도 달라졌었다. 그래서 座자에는 '계급'이나 '지위'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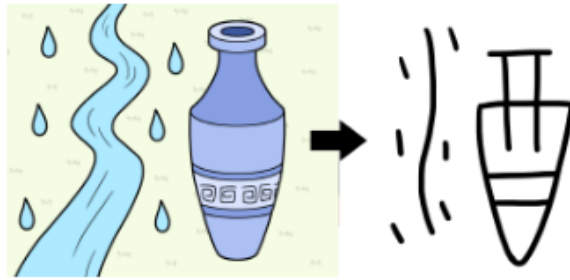
座

소전

座

해서

회의문자㉠



酒

술 주(·)

酒자는 '술'이나 '술자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酒자는 水(물 수)자와 酉(닭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酉자는 술을 담는 술병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술병을 그린 酉자에 水자가 더해져 있으니 酒자는 '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대에는 酒자와 酉자의 구별이 없었다. 酉자도 '술'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酉자가 십이지(十二支)의 열째 글자인 '닭'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酒자가 '술'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酒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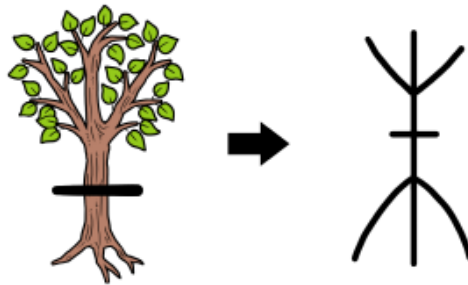
酒

소전

酒

해서

지사문자㉠



朱

붉을 주

朱자는 '붉다'나 '붉은 빛'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朱자는 木(나무 목)자와 灬(빨간 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朱자를 보면 木자 중간에 점이 灬 찍혀져 있었다. 이것은 나무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朱자는 본래 적심목(赤心木)이라 불리는 나무를 뜻하던 글자였다. 적심목이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던 붉은빛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붉다'라는 뜻만 남아 있다.

朱

갑골문

朱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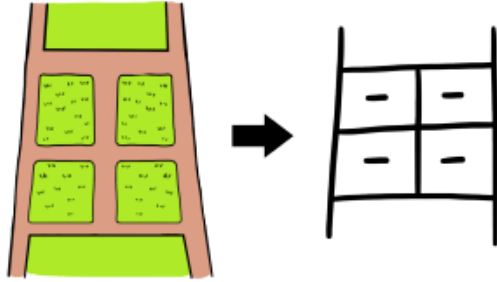
朱

소전

朱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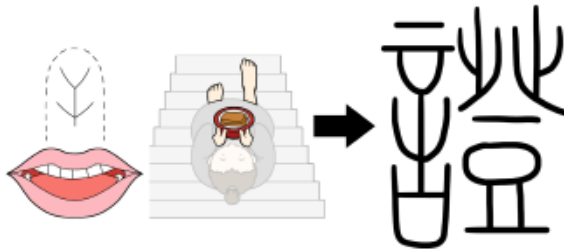
周

두루 주

周자는 '두루'나 '곧고루', '둘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周자는 논밭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周자의 갑골문을 보면 田(밭 전)자에 점을 찍어놓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밭의 둘레를 표현한 것이다. 당시 논밭을 뜻하던 田자가 田 단순히 밭의 도랑만을 그린 것이었다면 周자는 밭의 둘레를 표현하기 위해 벼가 심겨 있는 畝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口(입 구)자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는 '주(周)나라'처럼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의 周자는 중국의 고대국가인 '주나라'나 '둘레'나 '두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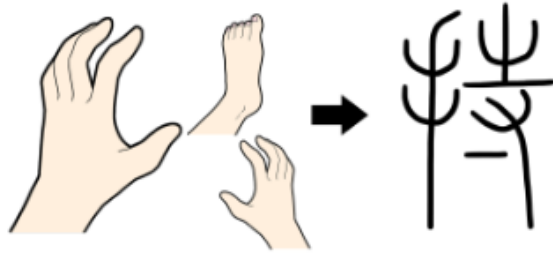
證

증거 증

證자는 '증거'나 '증명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證자는 言(말씀 언)자와 登(오를 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登자는 제기그릇을 들고 제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證자는 제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登자에 言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알리다'나 '고하다'였다. 그러니까 證자는 제사를 통해 신에게 인간사의 일들을 알린다는 의미였다. 이후 소상히 알린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증명하다'나 '증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持

가질 지

持자는 '가지다'나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持자는 手(손 수)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寺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이전에는 '관청'을 뜻했었다. 그러니까 나랏일 하던 곳을 뜻했던 글자가 바로 寺자였던 것이다. 여기에 手자가 더해진 持자는 나랏일을 관장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지키다'나 '유지하다', '지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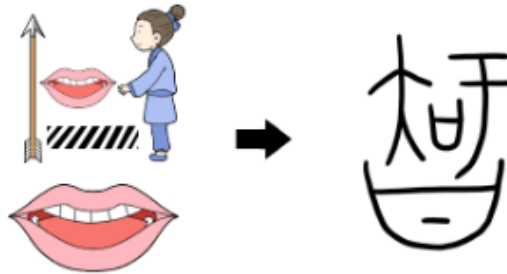
持

소전

持

해서

회의문자①



智

슬기/지혜 지

智자는 '슬기'나 '지혜',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智자는 日(해 일)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白(말씀 알)자가 쓰인 것이다. 그래서 智자는 白자와 知(알 지)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智자는 '화살(矢)이 순간간에 구멍(口)을 통과하듯이 말(白)을 잘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말을 잘하려면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智자는 "아는 것이 많아 말함에 거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혜'를 뜻하게 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智자가 知자를 파생시키게 되었는데, 知자는 배워서 알게 됐다는 의미에서 '알다'로 智자는 지식이 아닌 사람이 타고난 '지혜'를 뜻하게 되었다. 즉 선천적인 '지혜'와 후천적인 '지식'을 구분한 것이다.

智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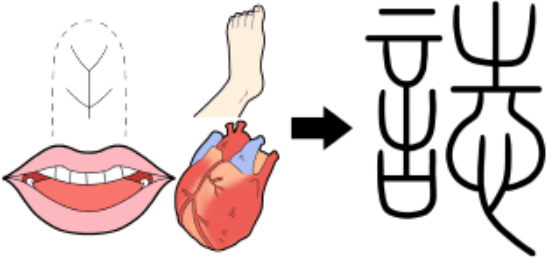
智

소전

智

해서

회의문자①



誌

기록할
지

誌자는 '기록하다'나 '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誌자는 言(말씀 언)자와 志(뜻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지만 志자는 본래 之(갈 지)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것으로 마음과 행동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뜻'이나 '본심'을 뜻하게 된 글자이다. 이렇게 '본심'을 뜻하는 志자에 言자를 결합한 誌자는 '사실(志)을 말(言)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誌자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적다'나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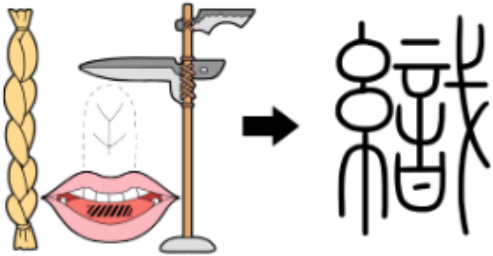
誌

소전

誌

해서

회의문자①



織

짜 직

織자는 '짜다'나 '만들다', '베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織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戠(찰흙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戠자는 '찰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織에서 말하는 '짜다'라는 것은 베틀로 '직물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베틀로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얼기설기 엮어야 한다. 그래서 織자는 진흙이 엉겨 붙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戠자에 系자를 결합해 '실을 엉키게 하다' 즉, '직물을 짜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조직'이나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織

소전

織

해서